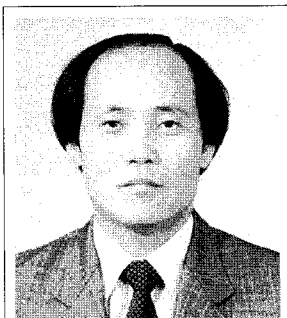


농산물중 잔류농약 걱정할 것 없다

식품의약품안전본부 연구결과 확인

우리가 식생활을 통해 실제 섭취하는 잔류농약의 양은 얼마나 될까? 많은 소비자들이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는 보도만 접해도 불안을 느낀다. 그러나 우리가 농산물을 먹을 때 섞여들어가는 농약의 양은 너무나 미미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 성인들이 하루에 섭취하는 식품중 곡물과 과일류, 주스와 잼 등을 통한 식품섭취량은 평균 4백40g(곡류 10종 310g, 과일류 20종 130g)인데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본부 식품안전평가실에서는 하루에 한 사람이 이 정도의 식품을 먹으면서 농약은 실제로 얼마나 섭취되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를 보면 실제농약 섭취량은 국제적인 1일섭취허용량의 0.18% 이하로 나타났다(표 참조).



홍 무 기 박사
식품의약품안전본부 잔류농약과 연구관

실제농약 섭취율

농 약 명	1일섭취허용량 (μg)	실제섭취량 (μg)	허용량 대비 섭취율 (%)
디메토에이트	550	0.024	0.004
페니트로치온	275	2.72	0.18
말라치온	1100	0	0

국제기준의 0.18% 이하로 안전 조리가공시 대부분 분해제거되

식품중의 잔류농약은 농산물을 씻거나 가공처리 함으로써 소실·분해되기 때문에 우리가 섭취할 수 있도록 처리된 상태의 식품은 처리전의 농산물에 비해 잔류농약이 많이 제거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접하는 잔류농약 분석치는 먹을 수 있도록 처리하기 전의 상태로 조사된 수치이다. 때문에 마치 이 수치의 농약을 매일 같이 먹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키곤 한다. 따라서 식품을 통하여 실제로 섭취하는 잔류농약의 양은 얼마나 되는지, 섭취되는 양은 안전한 수준인지 정확한 정보가 요구된다.

이같은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본부에서는 우리가 식생활을 통하여 많이 섭취하게 되는 조리한 곡류, 곡류 가공품, 과일류 및 과일류 가공품을 통하여 섭취될 가능성이 많은 15종의 농약이 얼마나 섭취되며, 이 수치가 국제 1일섭취 허용량과 비교하여 안전한지 식품의 안전성 여부를 평가해 보았다.

연구결과, 조리한 조·쌀·국수에서는 2종의 농약이, 식빵에서는 9종의 농약이 검출됐으나 그 양은 0~0.89 μ g(1 μ g은 1천분의 1mg)으로 극히 낮았다. 또 곡류별 평균 잔류농약 섭취량도 1일 섭취허용량의 0~0.782%에 지나지 않았다.

과실류 및 가공품에서는 15종의 농약 가운데 말라치온 등 8종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나머

지 7종의 농약도 실제 섭취상태에서는 잔류되어 있는 농약이 상당히 분해·소실되어 하루에 섭취되는 양은 0.05~2.7mg의 1천분의 1 수준이었다. 과일류 및 그 가공제품을 통하여 가장 많이 섭취되는 것으로 나타난 페니트로치온의 경우에도 1일섭취허용량인 275 μ g의 1%를 섭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안전성 충분히 확보 입증 잔류농약 우려는 기우에 불과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잔류농약에 대한 식품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이로 인한 인체 위해성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우리가 먹는 각종 농산물은 대부분 씻거나 껍질을 깎거나 가열·조리하여 먹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농산물중 잔류농약의 상당량이 분해·소실되므로 사람이 일상적으로 식품을 통해 섭취할 수 있는 농약의 양은 극히 미미하다. 보통 농산물중 잔류농약이라 함은 농산물 그 자체에 함유된 농약의 농도로서 실제 식품을 통한 농약섭취량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흔히 보도되는 잔류농약 분석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농약정보**